觀光資源活用의 本質的 屬性 및 基本的 方案에 關한 硏究

-觀光地開發者의 立場을 中心으로-

張 聖 洙

〈目 次〉

Ⅰ. 序 言
Ⅱ. 觀光地開發과 觀光資源活用
1. 觀光地開發의 意義
2. 觀光地開發과 觀光資源活用
Ⅲ. 觀光資源活用의 本質的 屬性
1. Clare A.Gunn의 觀光誘因 共通性을 通한 分析
2. 理解容易性 增進
3. 環境基盤性 强化
4. 魅力附加 및 滿足力量增大
5. 藝術創造力의 發揮
Ⅳ. 觀光資源活用의 基本的 方案
1. 總體的 價値構成과의 對比
2. 集積과 分散
3. 眺望範圍의 調節
4. 接近經路의 改善
5. 其 他
Ⅴ. 結 語

Ⅰ. 序 言

觀光地開發者의 立場에서 觀光需要增大에 相應하여 觀光資源을 供給하는 데 있어서는 두가지 方法이 있을 수 있다. 그 한가지는 새로운 觀光對象을 찾아내어 觀光資源化함으로써 需要에 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旣存 觀光資源의 利用을 보다 活性化하여 需要에 對處하는 것이다.

現時點에서는 이 中 後者 즉 旣存 觀光資源의 利用을 活性化한다는 것에 더욱 注意할 必要가 있지 않을까? 現代觀光에 있어서는 野外「레크레이션」活動을 追求하는 傾向이 짙은 것이 觀光需要의 動向이자 特徵이다.[1] 한편 우리의 좁은 國土空間은 多方面에서 나날이 增加하는 空間需要로 말미암아 利用的인 側面에서 더욱 더 狹小해 지는 趨勢에 있다. 그리하여 觀光需要에 副應하는 새로운 觀光對象을 繼續的으로 찾아낼 素地는 점차 限界에 부딪치는 感이 없지 않다. 더우기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2] 最近에 있어서 觀光에 對한 國民의 關心과 需要는 可히

1) 日本內閣總理大臣 官房審議室, 「觀光の現代的意義とその方向」, 1970, pp.24～26.
2) "올림픽 앞둔 유망산업 ; 관광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알아본다", 月刊 코리아 리쿠르트, 1983年 5月號, 通卷 第9號, p.12.

區 分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1982
人 口	33	34	35	36	37	38	38
觀光客總數	43	48	60	74	87	104	115

單位 : 百萬名

〔表1〕 國民觀光 推移

暴發的이라 일컬을 만큼 增大하고 있다. 따라서 現在의 實情은 暴增하는 觀光需要에 對備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旣存 觀光資源들의 最大限의 利用에 폭넓은 期待를 걸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와같이 볼 때 旣存 觀光資源의 利用을 活性化하고자 하는 觀光地開發者의 開發行爲를 深層的으로 吟味·考察한다는 것은 意義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行爲를 「觀光資源活用」이란 槪念으로 命名해 보았거니와, 特히 觀光地開發者의 立場을 中心으로 하여 觀光資源活用이란 行爲의 本質과 方案을 分析·究明하는 觀點에서 論해 보고자 한다.

上記한 대로의 觀光資源活用이란 槪念은 語義만으로는 多分히 模糊하며 그 意味를 더욱 具體的으로 把握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데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觀光資源開發이라 하는 槪念의 本質을 "觀光資源이 갖고 있는 獨特한 個性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그 「이미지」를 더욱 確然히 나타내는 데에 그 一次的인 目的이 있다."[3]라고 풀이하여 보다 明瞭한 理解를 꾀하는 바와 같이 觀光資源活用이라 이름한 槪念도 보다 明確한 意味로의 究明이 可能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觀光資源活用의 方案은 어떤 觀光資源이 對象으로 登場하느냐에 따라 相異할 것이나 如何間 大部分의 觀光資源活用에 通用될 수 있는 基本的 方案이 存在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아울러 觀光地開發者가 觀光地內 全體的인 側面에서 考慮해야 할 基本的 方案이 別途로 捕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本論에서는, 첫째 觀光資源活用의 意味를 觀光地開發의 意味 속에서 具體化하고, 둘째 Clare A.Gunn의 見解를 援用하여 觀光資源活用의 本質을 究明함과 同時에, 세째 觀光地內 全體的인 觀光資源活用의 手段으로서 講究될 수 있는 基本的 方案을 提示·考察해 나가기로 한다.

이러한 硏究는 觀光資源活用이란 槪念이 아직 一般化되어 있지 않은 만큼[4] 確固한 槪念定立을 爲한 하나의 提案的 試圖라는 點에서 그 意義와 價値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3) 徐庚林, "濟州道 觀光資源의 活性化 方案", 濟州大學「論文集」, 第9輯, 人文·社會科學 編, 1978, p.637.

4) 國內 觀光關係書籍들 가운데는 오직 '觀光資源開發'이란 槪念만이 아주 짧막하게 取扱되고 있을 뿐이다.

Ⅱ. 觀光地開發과 觀光資源活用

1. 觀光地開發의 意義

觀光地開發은 「觀光開發」이라고 하는 보다 蓋然的·包括的 用語로 부터 그 內容을 把握해 볼 수 있다.

觀光開發이란 한마디로 觀光事業[5]을 積極的으로 振興시키는 行爲라고 規定할 수 있다.[6] 다만 觀光事業은 國際觀光·國內觀光과 같은 여러가지 水準으로 把握할 수 있으므로 觀光開發이라는 말의 使用 역시 多樣하다. 國際觀光事業振興의 경우 外來觀光客을 受容하여 外貨를 獲得하고 그것으로써 國家의 經濟基盤을 確立하려고 하는 것을 '觀光立國'이라고도 말하는 데, 이처럼 觀光開發이라는 말은 그것에 依해서 觀光立國을 圖謀하는 것과 같은 國家全體의 水準에서 使用되는 수가 있다. 또한 觀光開發은 國內의 어떤 地域에서 關心事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落後地에서 觀光開發을 推進한다 라고 할 때와 같이 地域水準에서도 使用되고 있다. 그리하여 國家全體의 水準인가, 地域의 水準인가에 따라서 觀光開發의 具體的 內容이 달라지게 된다.[7] 그러나 먼저 觀光客이 存在하고 그것에 對해서 觀光對象으로서의 觀光資源과 觀光施設(서어비스 包含)이 對應하며, 나아가서 兩者를 連結하는 것으로서 情報와 交通이라는 機能이 있다 라고 하는 觀光의 構造에 있어서는 모두 다 同一하다.[8]

觀光開發이라 하는 것이 비록 여러가지 水準에서 비추어 지고 그에 따라 具體的 內容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如何間 그것은 地理空間上의 一定地域을 對象으로 하여 遂行하는 性質의 것이다. 換言하면 觀光事業을 積極的으로 振興시킨다고 할 경우 반드시 對象地域의 設定이라고 하는 行爲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리고 設定된 對象地域이란 觀光客에 있어서는 그의 目的地가 될 것이며, 그곳에서 어느 程度의 開發이 進行되고 있는 경우에 觀光地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觀光開發이란 보다 具體的으로는 觀光目的地 내지 觀光地의 開發을 指稱한다고 말할 수 있다.[9]

---

5) "觀光事業은 觀光現象에 대처하여 觀光의 效用性과 觀光事業이 안겨줄 社會的·文化的·經濟的 效果를 合目的的으로 촉진하기 위한 組織的인 人間活動이다."
金震燮, 「觀光學原論」, 日新社, 1976, pp.172~173.

6) 前田勇(編著), 「觀光概論」, 學文社, 1978, p.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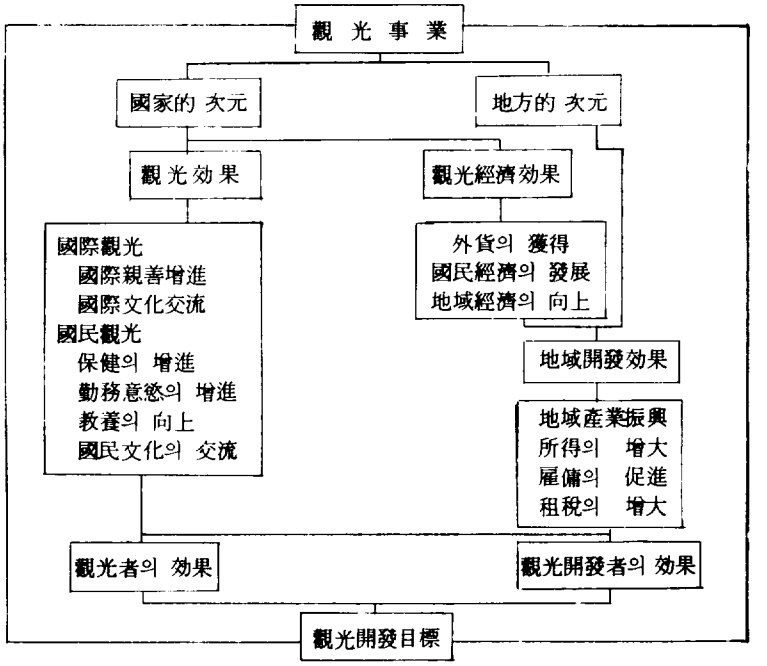
7) 上揭書, pp.119~120.

8) 上揭書, p.120.

9) 上同

그런데, 一般한 바와 같이 觀光開發의 對象地域은 이미 觀光地化가 어느 程度 進行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觀光開發은 그 自體가 二種의 意味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즉 旣存 觀光地의 경우에는 諸般事業을 보다 더 活性化시키는 것을 말하며 한편 觀光資源을 潛在的으로 保有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것들의 價値를 顯在化시키기 爲해서 새로이 觀光事業을 일으키는 것을 意味하기도 하는 것이다.[10] 그리하여 以上을 區分지어 볼 때 前者는 「觀光地開發」, 後者는 「觀光地造成」이란 말로써 表現하는 것이 合當하다고 思料된다. 따라서 觀光地開發이란 觀光地化가 어느 程度 進行되고 있는 地域上에서 보다 더 積極的인 意味로서의 觀光事業振興을 꾀하는 것이라고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觀光開發 곧 觀光事業의 振興을 圖謀하는 行爲는 觀光事業의 效果를 念頭에 두고 行해진다. 觀光事業의 效果는 國民이 觀光에 參加하여 얻어지는 效果(觀光效果)와 觀光行爲에 따른 觀光消費效果(觀光經濟效果)의 두가지로써 大別되고 있으며,[11] 具體的으로는 〈圖Ⅱ－1〉에서 보는



資料 : 日本觀光協會, 觀光開發計劃의 手法,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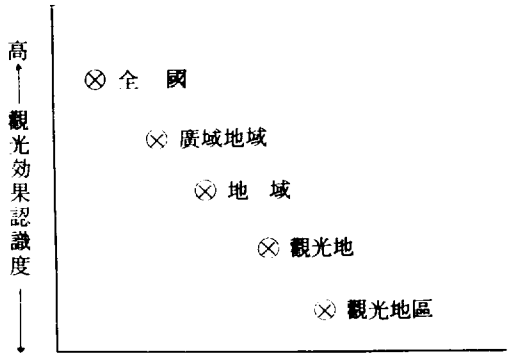
〈圖Ⅱ－1〉 觀光事業의 效果

10) 上同
11) 金震燮, 前揭書, p.268.

바와 같다.

이와같은 觀光者의 效果와 開發者側의 效果를 表裏의 關係에 두고서 實現하려는 것이 觀光開發의 目標인 데,[12] 地域의 槪念을 隨伴하는 觀光地開發이란 意味속에는 兩者 中 開發者側의 效果가 좀 더 强하게 內包하게 된다는 點을 看過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觀光開發의 目標를 國家的次元과 地方的次元에서 살펴 볼 경우 國家的次元에서 地方的次元으로 接近함에 따라 觀光經濟效果의 比重이 높아지는 反面 觀光效果의 認識은 낮아진다[13]고 하는 觀點에서 說明될 수 있다. 〈圖Ⅱ-2〉參照.

觀光地開發은 여러모로 보아 國家的次元보다는 地方的次元에 接近하는 말이며, 經濟效果를 爲主로 한 地域開發을 目標로 把握하여 觀光消費에 全面的으로 依存하는 姿勢가 그 말속에 부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觀光經濟效果는 어디까지나 觀光行爲에 附隨하여 發生하는 效果라는 것을 留意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實際問題로서 觀光地開發이 觀光者의 效果를 낮게보는 槪念이라 主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圖Ⅱ－2〉 空間次元에 따른 觀光事業效果의 認識度 比較

2. 觀光地開發과 觀光資源活用

觀光地開發은 觀光事業의 效果를 念頭에 두고, 地域內 觀光上의 便宜를 增進시켜 觀光客의 誘致와 觀光消費의 增大를 圖謀하는 開發事業이다. 이와같은 開發事業의 內容은 多岐多樣 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主要한 內容은 다음의 세가지로써 要約해 볼 수 있다.[14]

첫째, 觀光上의 便利를 圖謀하기 위한 施設開發[15]

둘째, 觀光事業의 振興을 爲한 諸制度의 整備

세째, 觀光客의 誘致를 圖謀하기 爲한 觀光宣傳

또한 이를 觀光客의 誘致를 第一로 하는 角度에서 考察하면[16]

12) 上同

13) 上揭書, p.269.

14) 鈴木忠義(編), 「現代觀光論」, 有斐閣双書, 1974, p.183.

15) "대개의 경우 觀光地開發은 施設開發을 中心으로 行해지기 때문에 觀光上의 便利의 增進을 도모하는 諸施設의 開發整備라는 狹義의 槪念이 一般化하고 있다."
上同

16) 金震燮, 「觀光學槪論」, 南榮文化社, 1981, p.205.

① 地域內 交通手段, 宿泊施設 및 各種 便益·慰樂施設 等의 受容能力增大

② 觀光對象의 量的增大 및 質的向上

③ 觀光需要市場과의 空間的 相互結束强化를 爲한 基盤施設改善

④ 諸般 需要市場開拓活動

等으로서 區分지어 볼 수도 있다.

以上의 諸事業은 모두 다 當該地域에 立地한 觀光資源의 特性에 基盤을 두는 것인 데,[17]그 中에서 觀光對象의 量的增大 및 質的向上은 觀光活動의 發火點이라고 할 수 있는 觀光地內 觀光對象들의 全體的인 發火力의 提高를 目的하는 事業으로서 一般的으로는 「觀光資源開發」이라 일컬어지는 範疇의 內容이다.

觀光資源開發이란 觀光客으로 하여금 觀光動機와 觀光行動을 일으키게 하는 目的物인 有形·無形의 觀光對象에 對해 人間의 智彗, 努力 및 資本을 投入하여 觀光資源이 지니고 있는 觀光效果를 높혀주는 것과 同時에 觀光價値를 보다 높은 次元으로 創造해 가는 行爲 내지 過程을 말한다.[18] 이러한 開發槪念은 從來 觀光資源으로서 아무런 價値가 없던 對象을 觀光客들의 變化하는 嗜好에 副應하여 새로이 觀光價値를 갖는 對象으로 化하게 하는 行爲까지를 그 속에 包含한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觀光地라고 불리우는 곳에서의 觀光資源開發은 이와같은 潛在的 觀光資源을 對象으로 한 價値附與的 開發(觀光對象의 量的增大를 爲한 行爲)보다도 旣利用中에 있는 觀光資源들에 對하여 利用을 活性化시키는 利用上의 開發(觀光對象의 質的向上을 爲한 行爲)이 主眼點이 될 것인 바, 觀光資源開發의 槪念 中에서 이러한 開發行爲만을 別途로 區分하여 「觀光資源活用」이라고 命名할 수 있을 것이다.

觀光地造成이 아닌 觀光地開發의 경우 開發者側의 立場에서는 旣存 觀光資源들의 利用을 向後 어떠한 水準까지 活性化시킬 수 있느냐 하는 觀光資源活用問題에 優先的이자 不斷한 關心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觀光地內 個個 觀光資源들의 活用現況 및 向後 豫想되는 趨勢를 土臺로 한 旣存 觀光資源供給能力을 觀光需要의 豫測과 더불어 先決한 後, 그에 맞추어 새로운 觀光對象의 發掘이라든가 또는 前述한 대로의 餘他 觀光地開發事業에 關한 事項을 擧論하는 것이 觀光地開發을 爲한 計劃樹立의 順序일 것이기 때문이다.

上記와 같이 觀光地開發과 觀光資源活用과의 關係를 論하여 보았거니와, 觀光地開發에 있어서 重次大한 問題라 할 수 있는 觀光資源活用은 開發者의 立場에서 觀光資源에 對해 도대체 무엇을 行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어떠한 方法으로 이룰 수 있는지를 以下에서 考察해 보기로 한다.

17) 鈴木忠義, 上同

18) 金正培·鄭承鎰, 「觀光資源論」, 螢雪出版社, 1980, p.307.

Ⅲ. 觀光資源活用의 本質的 屬性

1. Clare A. Gunn의 觀光誘因 共通性을 通한 分析

觀光地開發者가 觀光資源活用을 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觀光資源에 對해 어떤 行爲를 하는 것이냐를 分析的으로 把握한 主張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Clare A. Gunn 이 提示한 觀光誘因[19]의 共通性을 살펴보면 이 點에 對해 示唆하는 바가 至大한 것 같다.

Gunn 敎授는 모든 時代를 通해 觀光誘因의 領域은 매우 多樣하고 豊富하게 擴大돼 온 것이 事實이며, 따라서 皮相的으로는 매우 複雜한 集合體인 諸觀光誘因들 사이에서 어떤 一貫性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말한다.[20] 그럼에도 不拘하고 開發計劃家 等이 觀光誘因을 物理的 實體로 다룰 경우에는 그것들이 지니는 共通的인 特性에 關해 보다 더 알아야 할 것이 當然히 要求되며, 萬一 누군가가 觀光誘因을 改造하거나 或은 새롭게 造成하고자 하면 最少限 다음의 여섯가지 共通性(Six Attraction Commonalities)을 認識하는 일이 必要하다고 主張하고 있다.[21]

(1) 理解容易性 (Easy Comprehensibility)

(2) 環境基盤性 (Basis in Environment)

(3) 所有權統制 (Owenership Control)

(4) 魅力 (Magnetism)

(5) 滿足力量 (Capacity to Satisfy)

(6) 人間이 創造한 結實 (Result of Man's Creation)

위에 列擧한 여섯가지[22]는 어떤 觀光資源이 成功的 役割을 遂行하는 데 있어서 關係하는 根幹要素들이라고 보아지며 고로 觀光資源開發의 基本脈絡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旣利用中인 觀光資源의 繼續的인 利用 또한 이러한 脈絡 가운데에서 活性化를 摸索해야 될 것은 勿論인 바, Gunn 敎授가 提示한 이 여섯가지 內容을 通하여 觀光資源活用이란 行爲의 本質이 보다 具體的으로 풀이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19) Attraction의 본래 語感을 살려 이렇게 飜譯해 보았음.

20) Clare A. Gunn, *Vacationscape — Designing Tourist Regions*, Asia, Studies in Tourism - Recreation No.1, Bureau of Business Research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72, pp.34～36.

21) *Ibid.*, pp.36～39.

22) 이에 대한 附加的인 說明은 그 必要한 內容이 다음 各節의 考察과 더불어 보다 자세하게 言及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省略하였다.

그러나. 위의 列擧 中 所有權統制는 個個의 觀光資源이 누군가에 歸屬해 있으나 그것의 保護와 開發을 堪當할 수 있는 者에 依해 所有 및 管理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內容으로서, 그 以外의 다섯가지가 大體로 훌륭한 觀光資源이 갖추어야 할 要件을 다루고 있는데 比해 觀光資源을 開發하는 者의 資格에 따른 開發의 成功性與否를 言及하고 있을 따름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것은 觀光資源에 對하여 무엇을 行하는 것이 觀光資源活用인가를 糾明함에 있어서 그다지 論議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고 熟考된다.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魅力과 滿足力量의 두가지는 魅力의 當然한 結果가 그로 부터 派生하는 滿足力量일 것이기[23] 때문에 굳이 나누어 取扱할 必要없이 하나의 要素로 묶어보아도 괜찮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人間이 創造한 結實이라는 意味는 開發者의 立場에서 相對한 諸觀光資源은 그가 創意力을 가지고 行한 開發行爲의 所産이라는 뜻인 데, 이는 藝術作品의 創造結果와 本質的인 面에서 何等의 다를 바가 없으므로 換言하여 藝術創造力의 發揮結果라고 달리 表現하더라도 無妨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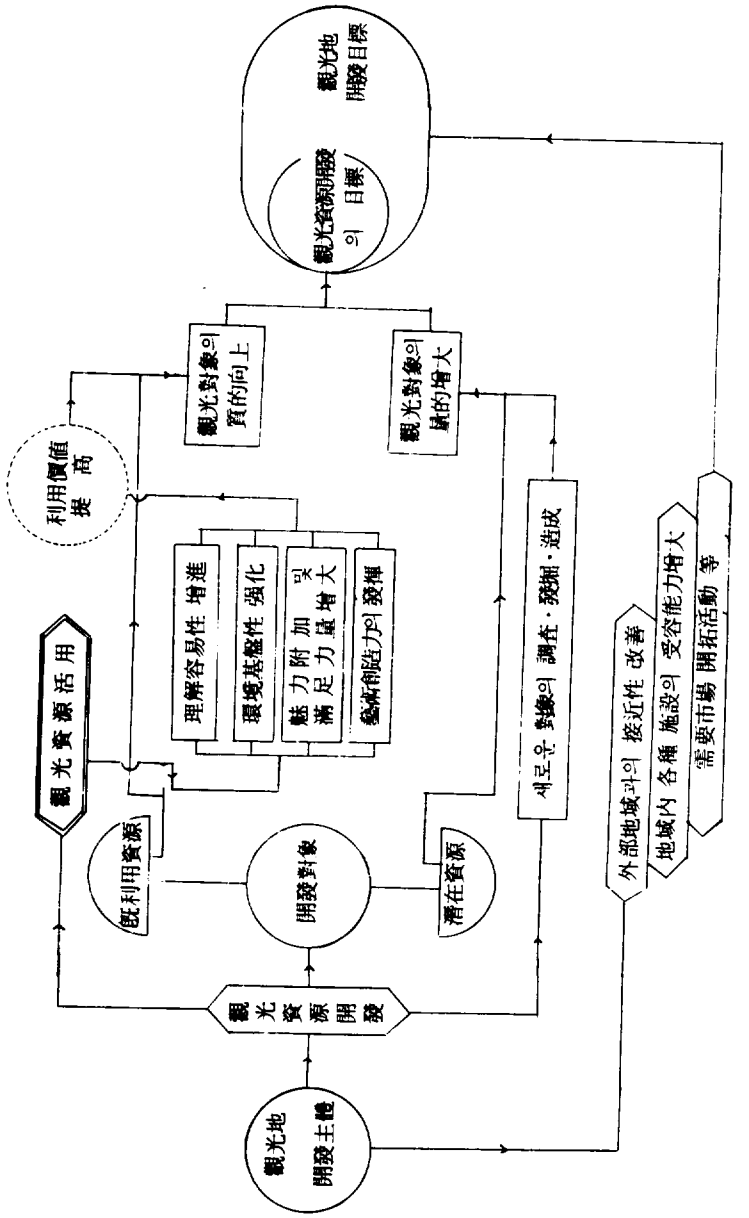
以上과 같은 생각을 綜合하여 觀光地開發者의 行爲인 觀光資源活用의 本質을 分析·考察해 보면 그것은 觀光地에서 旣利用中인 諸觀光資源에 對해 ①理解容易性 增進, ②環境基盤性 强化, ③魅力附加 및 滿足力量增大, ④藝術創造力의 發揮 等을 꾀하는 것이라고 主張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 把握하면 이 네가지가 觀光資源活用이란 意味의 本質을 構成하는 屬性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觀光資源活用의 槪念 내지 이 네가지 屬性을 觀光地開發者의 立場에서 全體的으로 鳥瞰하면 〈圖Ⅲ－1〉에서 보는 바와 같다고 見解를 圖示할 수 있다.

2. 理解容易性 增進

어떤 觀光資源이 그 眞價를 最大限 發顯하기 爲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그것을 찾아온 모든 觀光客에게 完全히 理解될 수 있어야 한다. 萬一 그것이 觀光客에게 理解되지 않는다면 必然코 그의 關心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結局 그에게는 觀光資源으로서 아무런 役割을 해내지 못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結果는 다시 말해서 그 觀光資源이 保有한 價値가 그대로 發揮될 수 없었다는 事實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成功을 거두고 있는 여러 觀光資源들을 살펴볼 때 그 모두가 한결같이 觀光大衆에 依해 쉽고도 선뜻 理解되고 있다는 點은 그다지 注意를 기울이지 않아도 쉽사리 捕捉할 수 있으리라 본다. 例컨대, 現在 人氣中인 프로野球의 경우를 들어 보더라도 初步者에 比해 그 「루울」과 妙味를 아는 觀衆일수록 競技에 보다 더 熱中하고 沒頭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 바, 이것은 野球競技 즉 對象을 깊이 理解할수록 그 深層的 價値를 즐길 수 있다는 事實을 端的으로 證明하고 있다.

23) Clare A. Gunn, *op. cit.*, p.38.



〈圖Ⅲ－1〉 觀光資源活用의 槪念位置圖

그러므로, 모든 觀光資源의 價値發顯 또는 利用에는 參與者의 完全한 感情移入에 必要한 屬性으로서 參與者의 敎育的인 理解 내지 相等한 能熟함에 對한 要求가 반드시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最新式의 活動型 休養地들 內에서 射擊, 水泳, 골프, 스키, 낚시, 사냥 等의 敎

習을 實施·提供하는 것이 常例가 되고 있는 現實은 이런 緣由에서 解明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낯선 訪問者가 理解하기 힘든 歷史的 遺物 및 史蹟, 復元建物 等에서 그 앞에 案內文이나 標識를 設置하여 記述的으로 解說하는 경우, 더 나아가서 錄音「테이프」나 或은 多樣한 展示, 公演 等을 通하여 그 理解가 充分하도록 說明하는 경우는 理解容易性 增進의 一環으로서 아주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美國의 경우는 심지어 國立公園 等地에서도 地域內 自然景觀이나 動植物群의 特異함을 解說해 주는 職業的 專門家를 雇傭하고 있다[24]고 한다.

要約하여 말한다면 어떤 觀光資源이든지 間에 觀光客이 完全한 理解程度를 넘어서기 前까지는 利用이라 하는 말조차 붙이기 어려울 것이고, 이 때문에 觀光資源을 對象으로 한 利用의 活性化에 接近해 가기 爲해서는 一次的으로 그것에 對한 完全한 理解力을 도울 수 있는 努力이 끊임없이 追求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努力이야말로 觀光資源活用의 첫째가는 本質을이루는 것이라는 點은 결코 否定될 수 없을 것이다.

3. 環境基盤性 强化

觀光客의 立場에서 考察할 때 觀光資源 個個는 그것을 圍繞한 環境 내지 背景 속에 휩쓸리며 그 背景속의 一部로서 存在한다. 어떤 觀光資源을 訪問하는 者는 그 하나만을 單獨으로 相對하게 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에워싼 周圍環境과 함께 相對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어떤 觀光資源이 各別한 意味와 價値를 부여받는 데 있어서는 그 背景이란 要素가 또한 絶對的이자 度外視될 수 없다. 例컨대, 濟州市 所在 龍頭岩은 周圍의 火山地形과 茫茫의 푸른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그 位置的 背景의 役割에 依해 더욱 돋보이고 있는 것이며, 그것 自體만이 서울 어린이大公園에 놓여져 하나의 彫刻形相을 나타내는 것과를 想像·比較해 본다면 그 背景有無에 따른 價値對照란 이루 形言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觀光資源은 地理的인 立地와 社會生活의 兩者에 依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이 兩者는 時間的·歷史的인 次元에서도 同一하게 作用한다. 卽, 國寶 第78號인 金銅彌勒菩薩半跏像은 비록 서울 國立博物館으로 移轉되어 있어도 그 根柢가 여전히 옛 新羅와 그 古都인 慶州에 屬하고 있음[25]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하여 觀光資源은 그 本來의 氣候風土라든가 其他 自然的 影響, 그리고 特히 그것을 둘러싼 人工的 影響에 隷屬당하는 存在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移植된 런던橋(London Bridge)는 美國「아리조나」州에서 찾게 될 때 마저도「런던」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26]

---

24) *Ibid.*, p.36.
25)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우리나라의 문화재」, 1970, p.159.
26) Clare A. Gunn, *op. cit.*, p.37.

이와같이 볼 때 觀光資源의 價値가 그것을 圍繞한 環境에 그 基盤을 두고 있다는 事實은 두말할 餘地도 없다. 어떤 觀光資源의 價値發顯에 있어서는 이러한 點이 極端的으로 두드러지기도 한다. 아울러 모든 觀光資源에 있어서 이 點은 極히 重要하다고 말할 수 있다. 外觀上 立地性이 없다고 느껴지는 觀光對象, 이를테면 賭博, 퍼레이드(Perade), 스포츠競技 같은 것조차도 어떤 種類의 環境 내지 背景 下에 자리잡게 된다. 우리들 귀에 익은 몬테카를로(Monte Carlo)나 라스베가스(Las Vegas)에서의 「카지노」賭博, 고라꾸엥(後樂園)의 甲子園野球 等은 무엇보다도 場所와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人氣를 누리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우리나라 國寶 第1號인 南大門이 行人의 눈길을 끄는 獨特한 魅力物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는 主된 理由는 하나의 歷史的 價値의 對象이 現代的 高層「빌딩」群에 依해 周圍가 에워싸임으로써 그 背景과 無關한 存在로서 君臨하고 있다고 하는 즉 環景基盤性이 매우 缺如되고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反面에 光化門의 李舜臣將軍 銅像은 같은 李朝時代 産物인 光化門을 背景으로 하여 歷史的인 意味를 더하고 있기에 一角에서나마 成功을 거두고 있기도 하다.[27] 結局 觀光資源에 對한 利用의 活性化를 爲해서는 이와같은 環境基盤性 如何에 對해서도 照明해 보아야 마땅할 것이고, 바로 이 點이 環境基盤性의 强化를 觀光資源活用의 本質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屬性으로 取扱해야 할 理由라고 할 수 있다.

4. 魅力附加 및 滿足力量增大

觀光資源은 觀光客을 誘引할 수 있는 魅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萬一 어떤 對象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價値를 享有하도록 스스로 이끌 수 있는 魅力을 保有하지 않는다면 결코 觀光資源이라 불리울 수는 없다고 본다. 觀光資源의 存在는 어떤 權威主義的 接近方式 즉 國立公園이라든가 國寶의 指定 等과 같이 그것에 對해 權威있는 機關이 判定을 내림으로써 成立한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그 存在에 對한 眞正한 「테스트」는 오로지 觀光客을 誘引하는 힘의 如何라고 斷言할 수 있다. 마치 磁石이 磁力을 가졌기 때문에 제 周圍로 못을 끌어 당기고 있듯이 觀光資源은 魅力을 가짐으로써 自身에게 觀光客을 誘引하고 있는 存在이다.

이와같이 觀光資源은 하나의 魅力物로서 看做될 수 있으며, 고로 旣利用中인 觀光資源을 加一層 魅力的인 것으로 助長하려는 行爲가 觀光資源活用의 本質的 屬性임은 再論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魅力의 當然한 結果는 그로 부터 派生하는 滿足力量이다. 따라서 魅力의 附加는 다시 말하면 滿足力量의 增大를 뜻하게 된다.

---

27) 陳英煥, 「歷史景觀의 再構成에 關한 硏究 ; 都市內의 文化財를 中心으로」, 서울大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8, pp.72~83.

훌륭한 觀光資源일수록 觀光客에게는 깊은 滿足으로 報答하고 있다. 萬一 觀光客이 觀光資源에 對해 無關心과 失望 或은 심지어 欺瞞의 確信까지를 느끼고 떠난다면, 觀光資源은 비록 한 번의 誘惑에는 成功하였을지 모르나 繼續하여 自身의 機能을 遂行하는 데 있어서는 失敗할 危險이 높아진다. 그리하여 觀光客이 그 經驗에 滿足하지 않는 限 觀光資源이 本然의 機能을 完遂하지 못한다는 法則이 成立할 수 있다.

이러한 事實은 觀光地開發者에게 있어서 主要한 難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觀光資源이 自身의 機能을 完遂하고 있느냐 하는 最終的 「테스트」는 觀光客 個個人의 마음속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皮相的으로는 觀光客의 量的水準으로써 이를 把握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訪問數値만으로는 觀光客의 滿足스러움의 깊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觀光資源이 보다 많은 觀光客에게 보다 깊은 滿足感을 주어야 再次 그 利用이 活性化되리라는 것은 어떻든 間에 明白한 事實이다.

이와같이 볼 때 魅力의 附加를 觀光資源活用의 本質的 屬性으로 손꼽는 데 있어서는 또한 滿足力量의 增大가 반드시 表裏의 關係로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진다.

5. 藝術創造力의 發揮

오늘날의 觀光資源 모두는 사람이 創造해 낸 結實이다. 이 單調로운 陳述은 或者에게 우둔한 말로서 들릴 지도 모르며, 特히 城山日出峰, 萬丈窟, 正房瀑布 等과 같은 自然的 驚異를 對함에 있어서는 더욱 納得하기 困難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觀光與件下에서는 어떠한 自然的 面貌라 하더라도 거기에 接近路, 展望臺, 駐車場, 案內計劃 等이 缺陷없이 具備되기 까지는 진정코 觀光資源으로 取扱될 수 없다. 現代의 人間은 그의 손이 한번도 닿지 않았던 原始的 또는 太初의 自然環境에서 完全히 벗어 났으며, 이제는 B. Mackaye의 말대로[28] 第二의 原始的自然(Second Primeval Nature)을 스스로가 創出해 내고 있다. 따라서 地球上에 純粹한 自然的 面貌로서 생각할 수 있는 觀光對象이란 全無한 實情이고,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觀光客들로 하여금 그 價値를 享有하도록 完全한 態勢를 갖추기 爲하여 어떤 人工的인 努力이 自身에게 行해짐을 必須要件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은 事實은 또한 反對的인 思考로 부터도 接近해 볼 수 있다. 오늘날 人間能力의 눈부신 發達은 스스로의 環境을 改造하고자 하는 人間의 意思를 매우 손쉽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自然的 面貌를 있는 그대로 維持하도록 選擇하는 일도 人間의 創案 내지 創造行爲의 一環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觀光資源 모두를 사람이 創造해 낸 結實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 그렇다면 個個의 觀

28) Benton Mackaye, *The New Exploration*, University of Illinois, 1962, pp.56~74.

光資源은 하나의 藝術作品과 同一한 것으로 看做되어 진다. 藝術作品은 어떤 藝術的 意圖의 結果이고, 藝術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손이 가서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技術'을 意味한다.[29] 觀光資源活用이란 行爲를 놓고 보면 역시 이 內容과 一脈相通한 意圖를 어디까지나 그 前提로 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行爲하는 主體의 立場에서 생각할 때 自己의 意圖를 投影하기 爲하여 最善의 努力을 投入한다는 一種의 能力驅使의 行爲가 될 것임은 勿論이다. 그러므로 觀光資源活用의 本質을 그 主體者의 藝術的 創造行爲 내지 創造力發揮를 뜻한다는 데서 찾아도 아무런 異常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附言해야 할 것은 藝術作品은 藝術的 意圖에 비추어 失敗할 수도 있고 더욱 拙劣한 것이 될 수도 있다[30]는 事實이다. 이 點은 觀光資源活用의 意味를 두고 생각해도 똑 같이 適用될 수 있다. 卽, 觀光資源活用은 觀光資源에 對한 向後의 利用을 活性化하겠다는 開發的 意圖의 能力에 따른 具現行爲일 뿐이지 그 結果의 好惡을 두고서 該當有無를 論할 性質의 意味는 아니라고 考察된다.

Ⅳ. 觀光資源活用의 基本的 方案

個個의 觀光資源은 特性과 立地, 利用水準 等을 各其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觀光資源마다 活用方案 또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點에서 觀光資源活用의 方案은 具體的인 觀光資源을 對象으로 한 事例硏究로써 다뤄질 때 確然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實際的인 意味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觀光地開發者의 立場에서는 個個 觀光資源의 價値提高보다 觀光地內 立地한 全體 觀光資源의 總體的 價値를 提高함이 必要한 것이고, 同時에 全體的인 活用方案에 맞추어 各 具體의 活用方案을 考慮하는 일이 重要하다고 생각한다. 本章에서는 이와같은 생각을 土臺로 觀光地內 全體的인 觀光資源活用에서 考慮해야 할 基本的 方案 몇가지를 提示·考察해 보고자 한다.

1. 總體的 價値構成과의 對比

하나의 觀光地에는 보통 多數의 觀光資源이 立地하고 있다. 個中에는 단 하나의 觀光資源만이 立地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例外에 屬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諸觀光資源의 活用은 어떤 일로 부터 始作해야 하는 것일까?

29) 조요한, "예술이란 무엇인가?", 「시간·공간·창조」, 서울예술전문대학, 특수연구 제 2 집, 1983, p.38.

30) 수잔K. 랭거 (著) ＼李昇薰 (譯), 「예술이란 무엇인가」, 高麗苑, 1982, pp.93～95.

觀光地開發者의 立場에서 보면 觀光의 經濟的 效果에 着眼하여 그 方便으로 삼는 것이 觀光資源活用을 圖謀하는 것이니 만큼 最少의 活用努力으로 最大의 觀光資源 價値提高를 얻어야만이 當然하다. 이와같은 當爲性을 놓고 볼 때 觀光地開發者는 個個 觀光資源의 最大限의 活用보다도 우선 觀光地內 立地한 全體 觀光資源의 能率的인 活用에 主眼을 두어야 目的하는 바를 無難히 達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個個 觀光資源의 活用은 서로간에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發生하며, '部分最適化의 總和로써 全體最適化를 이룰 수 없다'는 一般論理는 이 경우도 例外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觀光地開發者의 觀光資源活用은 觀光地에 立地한 모든 觀光資源의 總體的 價値構成을 考慮해 본 다음 그에 맞추어 個個 觀光資源의 活用方案을 講究하는 順序로 進行해야 함이 基本일 것이다.

어떤 觀光資源이 自身의 完全한 價値를 構成함에 있어서는 核心, 不可侵帶, 終結帶의 三大領域이 存在하게 된다.[31] 核心(The Nucleus)은 觀光資源의 第一의 要素인 存在理由라고 할 수 있으며, 例를 들자면 瀑布에서의 落水, 山의 頂上, 特殊林의 樹木, 海水浴場의 海邊·물·氣候 等이다. 不可侵帶(The Inviolate Belt)란 觀光客이 核心에 到達하기 까지 核心을 圍繞하고 있는 侵害받지 않아야 할 周邊領域으로 말하자면 背景을 가리킨다. 그리고 終結帶(The Zone of Closure)는 觀光에 있어서 必須的인 「서어비스센터」 또는 交通結節點과 같은 機能的 要素의 提供領域을 말한다. 그리하여 이 세가지 部分이 調和있는 實體로서 나타날 때 觀光資源은 훌륭한 價値를 지닌 것으로 化하게 마련이다.

以上의 三者를 두고 생각할 때 觀光地에 立地에 모든 觀光資源은 各其 獨自的인 核心을 갖고 存在하는 것이나, 各 觀光資源마다의 不可侵帶와 終結帶는 斷絶的인 獨自領域이 되는 경우도 있고 或은 서로간에 共有·重疊하는 領域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各 觀光資源은 總體的 價値構成에 있어서 相互 有機的 關係를 形成함과 아울러 어떤 觀光資源의 完全한 活用이 總體的 價値提高에 直結하지 못하는 事例도 惹起될 수 있다. 여기에서 觀光資源 相互間의 價値構成의 關係를 좀 더 具體的으로 풀이하다면 어떤 觀光資源은 다른 觀光資源과 더불어 水平的 同等한 立場에서 모든 觀光資源의 總體的 價値를 構成하는 一員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觀光資源에 對해 補完 내지 補助的 機能만을 遂行하는 데 지나지 않는 一員이라든가 또는 主導的 機能을 隨伴하여 觀光資源으로서의 價値를 갖도록 誘導하는 보다 根源的 一員일 수도 있다는 關係를 말한다.

그러므로, 觀光地開發者의 立場에서는 全體的인 觀點에서 모든 觀光資源 相互間의 有機的 關係를 면밀하게 分析·評價하고 나서 總體的 價値構成의 比重이 높은 다시 말해서 觀光地 全體的으로 活用價値가 至大하다고 判斷되는 觀光資源을 爲主로 倍前의 活用方案을 講究하고 完全

31) Clare A. Gunn, *op. cit.*, pp.40～43.

한 活用을 誘導하여야 보다 最少의 努力으로 모든 觀光資源의 總體的 價値를 一層 提高시킬 수 있게 된다. 어떤 觀光資源의 完全한 活用을 摸索함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다른 觀光資源의 活用은 고사하고 存在自體를 威脅할지도 모르는 狀況에 處할 수도 있을 것인 데, 이의 경우에도 '大를 爲해 小를 犧牲한다' 는 原則下에 總體的 價値構成과 對比한 活用方案의 講究를 그 基本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集積과 分散

觀光客이 孤立的인 場所에 立地한 單一의 觀光資源을 訪問하는 경우는 오늘날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와같은 現象은 觀光資源이 다른 類似한 觀光資源들로 부터 距離를 멀리 할수록 또한 枝葉的인 關心의 對象일수록 더욱 더 顯著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理由는 觀光客의 立場에서 볼 때 訪問한 만큼의 滿足스런 對價를 얻지 못하리라는 것이 너무나 自明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部類의 觀光資源은 可能한 限 一定場所에 集積시켜 獨自的 立地에 따른 相互間의 競爭을 緩和하고 아울러 集積效果를 거두도록 함이 效果的인 活用方案이라고 할 수 있다. 例컨대, 個別的으론 觀光資源化 내지 活用上에 隘路가 큰 小規模의 文化財 等이 博物館이라는 一複合體 內로 群集하여 充分히 活用되고 있는 事實은 이 方案의 훌륭한 實例로서 들지 않을 수 없다.

諸觀光資源의 集積은 다음과 같은 點에서 그 利點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可能한 限, 한 場所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活動하고 싶다는 것이 觀光客들의 一般的인 所望인[32] 以上 觀光客의 欲求에 符合하는 活用方案이 된다.

둘째, 類似한 觀光資源의 集積은 觀光客에게 그들 各者의 主題를 傳達함에 있어서 서로 커다란 도움을 주게 마련이다. 가령 觀光客이 어떤 觀光資源으로 因하여 歷史的 感興에 젖어 있을 때 近處에서 또 다른 史的 對象을 찾게 된다면 그의 理解 및 滿足度가 한층 深化할 것임은 두말할 餘地가 없을 것이다.

세째, 여러 種類의 觀光資源을 集積시킬 경우 보다 廣範圍한 部類의 사람들에게 關心을 誘發할 수 있다. 또한 多樣한 餘暇善用趣味를 가진 觀光客에게는 選擇의 機會가 폭넓게 주어진다.

네째, 現代交通體系에 매우 適應的인 活用方案이라고 할 수 있다. 現代의 交通機關은 사람들을 大量으로 한 交通中心點에서 다른 交通中心點까지 輸送하는 데 能할 뿐 個個 觀光資源까지의 「루우트」上에는 適用되기 어려운 實情이므로 集積이란 아주 좋은 解決方案이 아닐 수 없다.

다섯째, 觀光地內 通行을 爲한 敷地의 막대한 節減可能性이다. 相互 關聯性없는 一聯의 獨自的 觀光資源들에도 各其 通行敷地가 마련돼야 하는 데 反해 集積에 依하면 全體的인 通行敷地의 面積을 大幅的으로 縮小시킬 수 있다.

32) *Ibid.*, p.51.

그런데, 全體的인 觀光資源活用方案으로서의 集積은 단지 수많은 觀光資源을 함께 群集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以上의 意味를 內包하는 것으로서 理解하여야 한다. 卽, 群集化의 當然한 結果는 隔離化이고 集積은 반드시 分散을 隨伴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모든 觀光資源이 群集하여 서로 得이 되지 않는 경우 相反하는 要素들을 意圖的으로 隔離할 必要가 생기며 結局 다른 角度에서 群集化를 模索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集積은 오직 近接하여 相互 得이 될 여러 觀光資源을 하나의 意味深長한 全體속으로 群集한다는 基本的 「아이디어」일 뿐이다.

實際에 있어서 觀光地內 모든 觀光資源은 各者 獨立的 存在이며, 고로 個別的 全體로서의 그룹化(grouping)에는 集積 및 分散의 基準提示가 問題로 부각될 것이다. 그러나 集積과 分散은 多角度로 構想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觀光資源의 總體的 價値를 提高하는 方途를 마련함에 있어서 觀光地開發者의 立場을 高地로 이끈다는 點은 如何間에 틀림없는 事實이다.

3. 眺望範圍의 調節

觀光資源은 一般的으로 觀光客이 구경함으로써 그 價値를 發顯하게 된다.[33] 그리고 同一場所에 머문 觀光客들이 구경한 觀光資源의 「이미지」는 大體로 비슷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觀光資源은 그것이 鑑賞될 수 있는 一定範圍 즉 客觀的 立場에서 볼 때 各者 固有의 眺望範圍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觀光資源은 대개 三次元的인 것이어서 觀光客의 立場에서는 마치 彫刻作品을 對하듯 多角度에서 「스테레오」的[34]으로 鑑賞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實際的으로는 觀光客이 여러 角度에서 立體的으로 鑑賞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것은 첫째 多角的 鑑賞을 爲한 接近上에 隘路가 있고 한편으로 觀光資源은 自身의 背景과 調和를 이룰 때 진정한 面貌를 갖출 수 있다는 點에서 말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觀光客은 부득이 自身이 位置한 곳에서 어떤 背景을 바탕으로 한 觀光資源의 一斷面 내지 少數의 斷面만을 繪畵的으로 鑑賞하게 된다.

이것은 觀光資源이 自身의 價値를 發顯함에 있어 極히 重要한 問題要素가 될 수 있다. 卽, 觀光資源은 自身의 價値가 最大限度로 表現되는 어떤 最適의 斷面圖를 가진다고 想定할 수 있다. 萬一 이와같은 斷面이 보여질 機會가 觀光客에게 充分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觀光資源 本然의 價値는 潛在化 내지 死藏되는 結果를 招來한다. 그러므로, 觀光地開發者는 觀光地內 各 觀光資源이 어떻게 視覺化되어 있느냐를 問題삼고서 全體的으로 眺望範圍를 調節하는 가운데 全體的인 觀光資源活用을

33) 觀光資源은 觀賞的, 鑑賞的, 見學的, 休息的, 活動的 對象 등으로 區分되기도 하나 그 主된 것은 觀賞的, 鑑賞的 對象이라고 보아서 말해질 수 있다.
金相勳, 「觀光事業槪論」, 螢雪出版社, 1975, pp.42～44. 參照

34) 久保貞외 (譯), 「景觀論」, 鹿島出版社, 1972, p.327. 參照
(原本 : Garret Eckbo, *The Landscape We See*, McGraw-Hill, Inc., 1969)

圖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우선 視覺化의 方向이 問題視될 것이다. 例컨대, 濟州市 龍頭岩과 城山의 日出峰을 들어 보더라도 바다쪽에서 鑑賞하는 경우라든가 或은 헬리콥터 等에 依해 空中에서 展望·鑑賞하는 경우 等은 現在와는 훨씬 다른 「이미지」를 觀光客에게 심어줄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立體的인 鑑賞을 排除하고 意圖的으로 一斷面만을 보여주는 便이 觀光資源의 美的 感賞을 더하거나 또는 나머지 斷面에서의 美的 缺如를 想像에 呼訴하게 함으로써 한층 더 좋은 結果를 빚을른지도 모른다.

다음에는 視覺化地點의 距離關係를 생각해 볼 수 있다. 觀光資源은 視覺化地點의 遠近에 따른 그 面貌變化에 依해서도 觀光客의 鑑賞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고로 觀光地開發者의 立場에서는 觀光客이 觀光資源을 遠景과 近景이 理想的으로 調和된 特定地點에서 가장 注意깊고 오래도록 鑑賞하게 配慮함이 極히 重要하다.

北濟州郡 涯月面 古城里 所在 抗蒙遺蹟地가 觀光客에게 뚜렷한 印象을 심어주지 못하는 理由中의 하나는 아마도 이 點에 留意하지 않은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버스」로 駐車地에 서자마자 抗蒙殉義碑를 核心으로 한 觀光資源의 全貌가 곧 바로 담장 넘어 보이며, 막상 내려가서 구경한다한들 別다른 面貌가 찾아지지 않고 또한 案內員에 依한 몇마디의 理解增進으로 더 以上의 어떤 面貌를 發見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35] 그리하여, 聖域觀光對象임에도 不拘하고 觀光客의 들뜬 氣分을 누그러뜨릴 餘地를 갖지 않은 無味乾燥한 眺望地點의 實在는 觀光客의 豫想을 뛰어넘는 嚴肅하고 珍奇한 멋을 자아내지 못한 채 期待以下의 失敗로 이끌기 꼭 알맞은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같은 視覺化의 方向 및 距離關係는 觀光地內 展望臺, 休憩場所 等의 設置와 密接한 關聯을 가질 것인데, 觀光地開發者는 特히 個個 觀光資源까지의 接近路上에서 나타나는 觀光資源의 「이미지」俱現過程 및 動景觀[36]의 狀態와 함께 觀光地內에서의 包括的인 眺望을 硏究·檢討하여 바람직한 方向과 距離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觀光地開發者는 眺望位置의 高低, 樹立帶 或은 遮斷幕의 施設, 案內等에 依한 適正距離까지의 耳目分散 等을 通하여 全體的인 觀光資源活用에 있어서 어느 程度 有利한 立場을 堅持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한편 眺望範圍와 더불어 考慮해야 할 또 하나의 素材는 觀光資源의 視覺化가 時間과 季節에 따라 變化할 수 있다는 點이다. 有明한 觀光資源은 特히 時間的 次元을 둔 遠景과의 調和속에서

35) 수차례 現地踏査한 經驗을 토대로 記述한 것임.

36) "景觀 그 自體는 정지하고 있지만 高速의 交通機關을 利用하는 觀光客은 '움직이는 景觀'을 보게 된다. 이렇게 走行中에 車窓밖에 나타나는 景觀을 우리는 動景觀이라고 부른다."
徐庚林·李宗錫, "觀光開發과 自然保護運動의 連繫推進方案", 「새마을運動 10周年記念 硏究論文集」, 濟州道, 1980, p.153.

그 特色을 자랑하고 있다. 瀛州 十二景이란 말가운데서 보더라도 城山日出, 紗羅峰落照, 瀛邱春花, 橘林秋色, 鹿潭晩雪, 龍淵夜帆 等의 語句는 이를 實證하여 膾炙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觀光地開發者는 時間的 次元까지를 念頭에 두고 觀光地內 모든 觀光資源에 對한 眺望範圍를 研究·檢討해야 할 必要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接近經路의 改善

觀光客은 어떤 接近經路를 通過하여야 觀光資源까지의 到達이 可能하다. 接近經路는 觀光地에 이르기까지의 外部經路와 觀光地內 內部經路로 나누어질 수 있는 데,[37] 이 中 內部經路는 觀光地內 모든 觀光資源의 價値發顯에 極히 重要한 要素로 作用할 素地가 있다.

Clawson은 洞察하기를 "典型的으로 關心은 「레크레이션」敷地에만 直結되어 왔다. 그러나 「레크레이션」敷地에서의 經驗이란 全體의 一部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對價로 換算하면 작은 部分이다."[38]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主張에서 示唆되는 바와 같이 觀光資源에서 얻어지는 觀光客의 經驗은 觀光資源까지 到達하는 接近經路上에서 觀光客이 겪는 經驗과 延長線上에 位置한 것으로서 觀光資源을 對象으로 한 全體 經驗 가운데 一部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어쩌면 接近經路의 始作과 더불어 觀光資源의 價値가 發顯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른지 모른다.

觀光資源까지의 接近經路는 大小, 廣狹, 高低, 長短, 難易度, 通過時間 等의 差異를 가지는 것인 바 어쨋든 그에 따른 機能은 觀光客에게 대단히 重要하다. 接近經路의 機能은 觀光資源의 鑑賞이란 觀點에서 볼 때 한마디로 自然的心理의 調節 및 反映이라고 할 수 있다. 觀光客에게는 觀光資源에 맞부딪치기 以前 接近經路上에서 이미 觀光資源에 對한 「힌트」, 豫見 或은 어떤 暗示가 주어지기 마련이다. 만약 이것이 弱하거나 顯著한 差異가 있거나, 아예 갈피를 못잡게 한다면 觀光資源은 觀光客의 瞬間的 氣分에 左右되는 매우 條件附的이고 暫定的인 魅力物에 不過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觀光資源에 이르는 中途에서 誘發된 觀光客의 心的態勢 또는 先入觀은 觀光客이 觀光資源 本然의 面貌에 直接 부딪칠 경우에 갖는 受容力 및 認定心과 커다란 關係를 가진다는 것은 疑心할 바 없는 事實이다.

이와같이 볼 때 觀光資源의 價値發顯에 關係하는 要素로서의 接近經路는 一般的으로 그것의 功으로 돌려져 온 것보다 더욱 强力한 機能을 갖는 要素라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 그것없이는

37) 金相勳, 「觀光學概論」, 集文堂, 1981. p.129. 參照

38) Marion Clawson, "Recreation as a Competitive Segment of Multiple Use", in *Land and Water Use*, edited by Wynee Thorne. Washington, D. C.,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63, p.172.

觀光資源의 存在가 無意味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例가 약간 不適切할 지 모르나 伊太利의 「상지미니아노」聖堂 建築이 出入通路上에 나타나는 聖堂의 「이미지」 具現過程에 成功하여 有明한 藝術的 産物이 되고 있음[39]은 이런 面에서 觀光資源을 活用하고자 하는 立場에서도 본받아야 할 龜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觀光地開發者의 立場에서는 觀光地內 모든 觀光資源의 深層的 活用을 圖謀하는 方案의 一環으로서 接近經路의 改善을 必히 考慮해 보아야 할 것이다. 接近經路의 改善은 特히 觀光資源의 理解容易性을 增進시키는 데 있어서 至大한 影響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古蹟觀光의 경우 觀光客으로 하여금 地形上의 距離에 따른 經路를 밟게 하는 것보다도 옛 時代 興亡盛衰의 발자취를 더듬는 經路를 提供하게 될 때 觀光客의 歷史的 理解가 한층 高調될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卽, 한 나라의 榮枯盛衰가 몇 時間 혹은 하루의 흐름으로 走馬燈 같이 再現될 수 있음은 百마디의 說明보다 呼訴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觀光地開發者는 單純히 距離克服을 爲한 方策으로서의 接近手段改善뿐만이 아니라, 觀光資源活用이란 側面에서 接近經路를 觀光資源鑑賞에 有利한 方向으로 設定함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리고 觀光地內 全體 觀光資源의 總體的 價値提高를 爲한 效率的 內部經路의 提供을 窮極的 課題로 삼아 個個 觀光資源에 이르는 最適의 接近經路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를 爲하여 觀光資源間의 接近順序調整, 步行 혹은 車行의 指定, 接近便宜度의 調節 等等의 下位手段이 多角度로 講究될 수 있다는 點에 改善의 폭은 無限한 可能性이 있다고 思料된다.

5. 其　　他

上述한 바와 같이 觀光地開發者가 觀光地內 全體的인 觀光資源活用에 있어서 考慮해야 할 基本的 方案들을 列擧·考察하였거니와 또한 重要한 것은 이들 相互間에는 어떤 關聯性을 갖고 있다는 點이다. 卽,總體的 價値構成에 立脚한 活用講究를 中心으로 集積과 分散, 眺望範圍의 調節 接近經路의 改善 等은 各者가 다른 方案을 講究하는 데 있어서 制約條件 또는 變數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라 생각한다. 例컨대, 觀光資源의 集積이란 接近經路의 短縮과 一脈相通하는 것이고, 接近經路의 改善은 眺望範圍의 變化를 惹起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方案 各者는 觀光資源活用이란 從屬變數를 決定하는 여러 變數要因을 묶은 包括的 獨立變數임과 同時에 相互間 어떤 關係式을 맺고서 觀光地內 立地한 모든 觀光資源의 總體的 價値發顯에 影響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觀光客을 相對로 한 事前 必要知識의 技術的注入과 같은 것을 基本的 方案의 하나

39) 久保 貞외, 前揭書, pp.326～328.

로서 考慮할 수 있으나, 上記의 네가지 方案처럼 普遍的이고 包括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없으므로 나머지는 考察을 省略하기로 한다.

V. 結　　語

觀光地開發目標를 達成하기 爲한 事業의 一環인 觀光資源開發은 觀光對象의 量的增大와 觀光對象의 質的向上이라는 두가지 側面에서 把握할 수 있다. 이 中 觀光對象의 質的向上은 다름아닌 旣存 觀光資源의 利用을 向後 어느 만큼 더 活性化시키는가 하는 點으로 歸着할 것인 바, 本稿에서는 觀光資源의 利用을 活性化시키기 爲한 觀光地開發者의 行爲에 對한 本質究明을 問題삼고서 그 行爲를 한마디로 表現하여 「觀光資源活用」이라 命名해 보았다.

이와같이 命名한 觀光資源活用이란 槪念은 Clare A. Gunn의 觀光誘因을 成功的으로 이끄는 여섯가지 要素를 參考로 하여 考察할 때, 좀 더 具體的으로는 觀光資源에 對해 ①理解容易性 增進, ②環境基盤性 强化, ③魅力附加 및 滿足力量增大, ④藝術創造力의 發揮 等을 꾀하는 것이 그 主된 本質이라고 規定할 수 있다.

한편, 觀光資源活用의 主體인 觀光地開發者의 立場을 中心으로 생각하면 個個 觀光資源의 價値提高 또는 利用의 活性化보다도 觀光地內 立地한 全體 觀光資源의 總體的 價値提高 내지 全體的 利用의 活性化를 摸索해야 할 것인 데, 이에 對한 基本的 方案으로서는 總體的 價値構成에 立脚한 活用講究를 中心으로 集積과 分散, 眺望範圍의 調節, 接近經路의 改善 等이 提示·考慮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 方案 各者는 相互間에 影響을 미치는 變數要因이 되기 마련이며 따라서 이들 間에 맺는 關係式을 爲主로 하여 觀光地內 全體的인 觀光資源活用의 結果値가 대충 決定된다고 推論된다.

本稿는 이와같이 觀光地開發者의 開發行爲에 屬하는 觀光資源開發의 槪念 가운데 一槪念을 抽出하고서 그 屬性을 分析·究明하였음과 아울러 行爲에 對한 槪念을 뒷받침할 수 있는 基本的 方案까지를 考察해 보았다. 어떤 槪念의 分化와 그 屬性의 分析·究明에 對한 必要性은 再論할 바 없을 것이나, 다만 本稿는 觀光資源開發의 槪念에 對하여 처음 試圖해 본 槪念의 分析化 作業이었으니 만큼 보다 면밀한 論議와 批判을 通하여 修正할 餘地가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下位槪念의 分析·究明에 對한 試圖를 通하여 觀光資源開發, 觀光地開發 等의 槪念의 틀이 더욱 確固하게 體系化될 수 있다는 點은 疑心할 餘地가 없을 것이다.

SUMMARY

A Study on the Substantial Attributes and the Basic Methods for the Best Utilization of Tourism Resources — Especially from the Viewpoint of the Tourist Resort Planner —

by Jang, Sung-soo

The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 can be separated into two aspects; on one hand there is that development that increases the total number of tourism resourc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hose developments that elevates the quality of established tourism resources. We may consider the latter as the Best Utilization of established tourism resources. This study focuses on looking into 'the Best Utilization of Tourism Resources' from the viewpoint of the tourist resort planner.

An analysis of the above concept is clarfied by Clare A. Gunn's Six Attraction Commonalities, among which I found Four Substantial Attributes that compose the nature of the Best Utilization of Tourism Resources.

First, Promotion of Easy Comprehensibility. Second, Enhancement of Basis in Environment. Third, Addition of Magnetism & Increase of Capacity of Satisfy. Fourth, Display of Man's Artistic and/or Creative Ability.

For the Best Utilization in Tourism Resources, there are Basic Methods which can be adopted by the tourist resort planner. My personal view suggested the following Basic Methods; for example, Use Device harmonized with Total Value Constitution, Aggregation and Disperson of Tourism Resources, Adjustment of Lookout Scope, Improvement of Access Routes, etc.. Also, it will be seen that there ar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methods and that each of them has an influence on the other. Therefore, the outcome of the Best Utilization conducted by a tourist resort planner basically depends on the above variables.